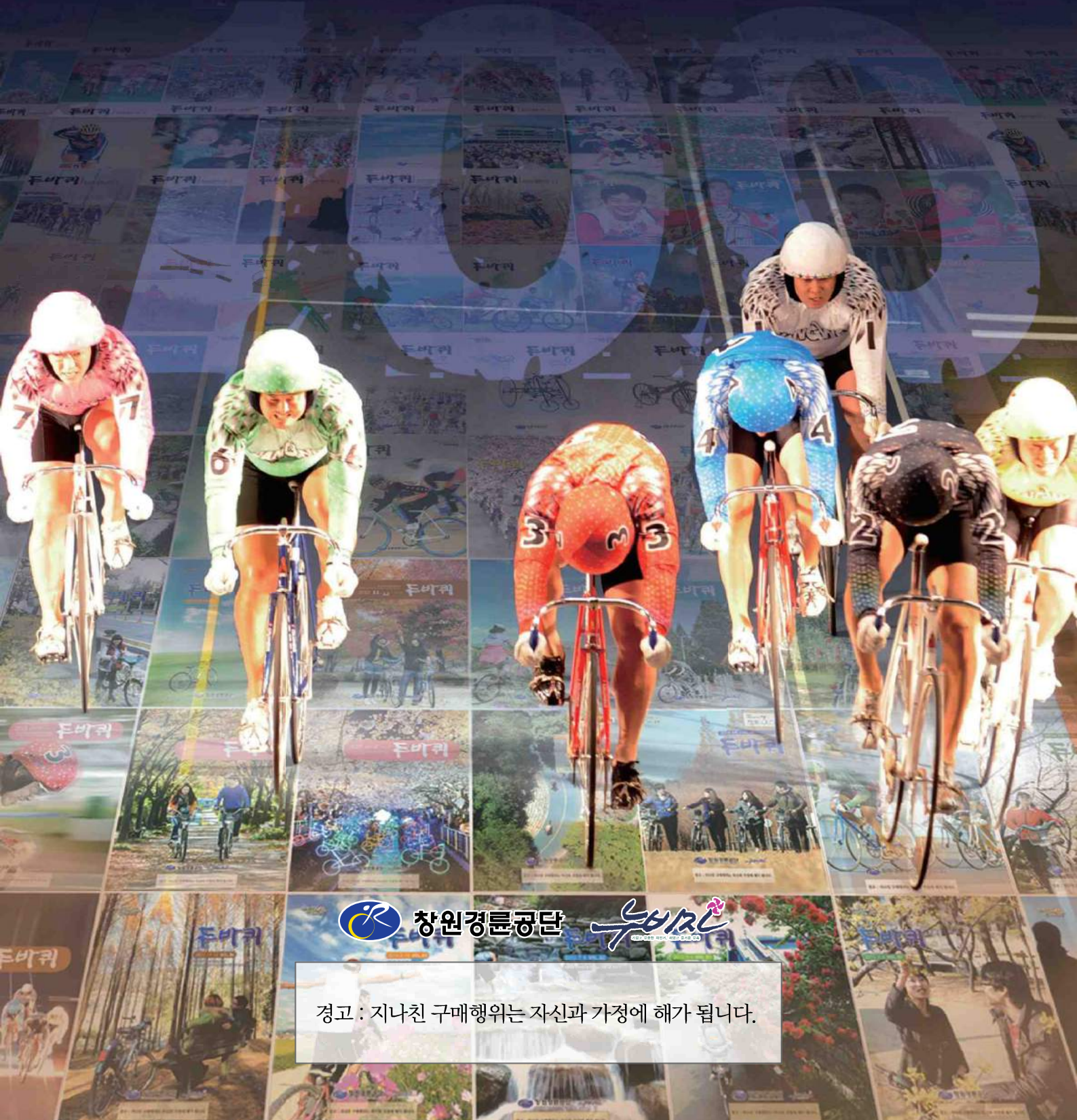


2019 하반기호 | VOL. 100

너와 내가 하나의 원으로 만나 조화로운  
두바퀴가 될 때 먼길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 두바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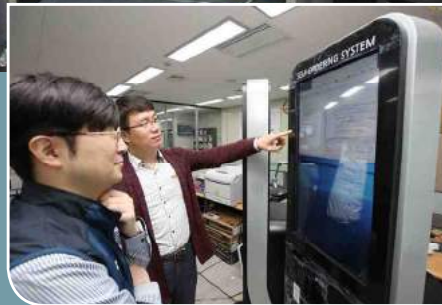
창원경륜공단



경고 :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다.

## 경륜을 만드는 사람들 : ICT개발

고객들의 베틱을 위한 발매시스템 전반에서부터 업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까지 공단 시스템 전반에 있어 ICT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특히나 창원, 광명, 부산 3개 시행체간의 교차 송·수신경주를 진행함에 있어 그 역할은 대단히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ICT 개발부서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객들의 편의와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 경륜경주의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2001년 4월 30일 창간호 발행으로 시작한 창원경륜공단 사보 「두바퀴」가 어느덧 100호가 되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주정보와 지역소식, 선수정보 제공을 위한 사보 제작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두바퀴

2019 하반기 | VOL. 100

## CONTENTS

04	이사장 기념사	김도훈 이사장
06	경륜칼럼	누비자 10년
08	경륜축제	창립19주년 기념 경륜축제
10	경륜정보	경주운영방식 변경
11	경륜정보	숫자로 보는 경륜
12	공단사이클팀	2019 공단 사이클팀 비상하다!!
14	경륜뉴스	그랜드홀(지정좌석실) 오픈
15	경륜뉴스	사명변경 & 사업다각화
16	공단경영	윤리경영 & 인권경영
18	공익사업	경남사랑 자전거대행진
19	환경체험	환경체험 자전거투어
20	누비GO!	누비자로 떠나는 창원관광
22	두바퀴 인생	17기 우수급 남용찬
24	가보고 싶은 우리땅	진주 유등축제를 찾아서
26	공단행사	2019 노사한마음 다짐대회
28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사고의 유형과 예방법
30	창원 돛 소식	공단·창원지역 경륜선수 봉사활동 등



## 공단 창립 19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공단의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창립 기념식은 '창원경륜공단'이라는 이름하에 거행되는 마지막 행사이므로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회도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공단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공단 활성화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인 사명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사명과 함께 열어갈 우리의 미래를 앞에 둔 마지막 창립기념식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단 가족 여러분!

2019년 4월 19일, 제가 취임식을 하면서 저의 경영 의지를 표명한지 벌써 5개월 정도가 훌쩍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저는 거침없이 공단의 체질 개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

명변경 추진», 「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장외매장 추진», 그리고 「고객모시기 운동과 지정좌석제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이 그것입니다.

물론 그간 우리가 손잡고 걸어온 5개월여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감 없이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파악한다면, 사업 영역 확대는 우리의 염원과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경륜·경정 매출 하락세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아마도 올해가 공단 창립 이래 모든 경영 지표가 최악인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으로 우리는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취임식 때 여러분에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경영정상화가 아

년 중장기적인 경영안정화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더욱더 강건해 지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은 빛나는 미래를 위한 교두보가 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정과 지금 흘리는 땀은 경영안정화로 가는 초석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단 가족여러분!

올해 하반기도 지속되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태어날 우리 조직을 위한 노력과 도전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이 주인인 이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탄없이 임원 및 중간관리자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조건적인 'YES'가 아닌, 발전적인 'NO'라는 의견도 주십시오. '수직적 의사소통구조', '상명하복'만이 미덕인 조직은 경직되어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고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본인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자세로, 독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 속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조직을 만들어갑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힘과 지혜를 모으면 우리의 노력에 대한 성과는 조금씩 가시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미래를 맞이할 직전에 잠시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최근 방영된 드라마 대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다.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것이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틴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만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1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지

가깝고 유용한 자전거, 재밌고 즐거운 유동

10년간의 운영능력을 발판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



『창원시 곳곳을 자유로이 다니다』

**누비자**  
가볍고 유용한 자전거, 깨끗하고 즐거운 운동

- 회원가입 : 53,940명 (누적 463,900명)
- 1일 회원 : 195,169명 (누적 1,297,331명)
- 이용횟수 : 5,226,458회 (1일 평균 14,280회)

올해는 전국 최초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가 출범한지 12년, 공단이 수탁운영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누비자」와 「자전거」의 합성어로 '창원시 곳곳을 자유로이 다니다'라는 뜻의 누비자는 프랑스 파리의 공영자전거 '벨리브'를 벤치마킹해 탄생했다. 하지만 시스템만 참고했을 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모든 부분을 자체 개발하고 특허도 취득하는 등 많은 운영 노하우가 쌓여 이제는 국내 모든 공영자전거를 운영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지자체 등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현재 일평균 이용률은 1만 2천회에 달하는데 이는 도입 초기 창원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 일평균 150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정점을 찍은 이용률이 점차 하락추세에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대중화와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자전거 이용에 있어 주변 여건 부족이 손꼽힌다.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 전국 최고를 자랑하던 자전거 도로는 곳곳이 패여 성한 곳이 없고, 초기 투자 이후 유지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원성 또한 엄청나다. 전국 최초의 공영자전거인 누비자와 짝 뺀 자전거도로에 대한 창원시민의 자부심이 무색할 정도다.

또 누비자의 아쉬운 점은 대부분이 도심지에 집중 되어있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오는 한계이긴 하지만 이제는 도심 위주의 배치를 벗어나 전국 최장인 300km가 넘는 해안선 인근에 있는 관광지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주말이면 창원 귀산동 일대, 마산 해양드라마세트장과 로봇랜드, 진해 해양공원 등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관광지로 연인, 가족단위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의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차량으로만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한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누비자를 투입하게 되면 교통난에도 대응할 수 있고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또 창원시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1000만 해양관광도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10년을 넘어 50년, 100년 뒤까지 지속 가능한 공영자전거 누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영자전거는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공유자전거와는 달리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에서 발생한 바 있는 공유자전거 업체의 도산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교통복지나 환경보호정책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것이다.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여가선용을 위해서 10년간의 운영능력을 발판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가 왔다.



## 창립19주년 기념 경륜축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펼쳐진 창립 19주년 기념  
경륜축제에서 동서울팀의  
정하늘 선수(21기)가 창원경륜의  
왕좌를 차지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9월 8일 벌어진 창립 19주년 기념 경륜축제 특선급 결승에서 정하늘 선수는 타종과 동시에 강력한 선형 승부수를 띄운 정해민 선수를 차분히 마크, 최종 주회 4코너부터 폭발적인 스피드로 추입승부를 던지며 우승을 차지했다. 2, 3위도 같은 팀 정해민, 신은섭 선수에게 돌아가 동서울팀의 잔치로 축제는 막을 내렸다. 당초 홈에서 경기를 펼치는 창원팀의 우세가 예상됐지만 성낙송 선수가 준결승에서 탈락하며 박용범, 윤민우 선수 두 명만 결승에 진출해 수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채 대열 후미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안방에서 일격을 당했다.

우수급에서는 출전선수 중 올 시즌 승률 11%에 그치며 최하위로 평가되던 정충교 선수가 추입승부로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나 102.2배, 쌍복승 278.4배의 고배당을 만들어내 경륜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선발급에서는 이재옥 선수와 임섭 선수가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경륜축제에서는 고품격 경륜경주 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내걸린 경품추첨과 함께 통기타가수, 댄스 걸그룹의 축하공연, 추억의 아이스크림, 과일화채 증정행사, 타로카드 상담, 캘리그래피 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공단을 찾은 시민과 경륜팬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 ◀정하늘 선수 인터뷰

### Q. 올해 첫 대상경주 우승의 소감

A. 창원경륜공단 창립19주년 기념 경륜축제에서 우승하게 되어 너무 기쁘구요, 궂은 날씨에도 경륜장을 찾아주신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더 성장하는 정하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Q. 동서울팀 세 명의 선수가 결승에 올라왔는데 어떤 작전을 염두해 두고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A. 경상권 선수들이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끊어가는 전법을 생각하고 경주에 임했는데, 다행이 게임이 수월하게 풀려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Q. 그랑프리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어떤 목표가 있는지?

A.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도 그랑프리 우승이 목표일텐데 저 역시 그랑프리 우승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주운영방식 변경

창원경륜 25회차(2019. 7. 5)부터 1,2일차 합산성적으로 결승진출자를 가리는 트라이얼 대진 방식에서 수정토너먼트 대진방식으로 변경됐다. 1일차 독립대진, 2일차 예선, 3일차 결승으로 이뤄지는 수정토너먼트 대진방식 도입으로 선수들에게는 피로누적 방지와 낙차위험 감소, 고객들에게는 독립대진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성 경주편성으로 고객 흥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차	2일차	3일차
현 행	예선	예선	결승
개 선	독립대진	예선	결승
대상경주(현행동일)	예선	준결	결승

## 삼쌍승식 확대시행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삼쌍승식이 2019년 9월 20일부터 전 경주로 확대시행된다. 삼쌍승식 특성상 고배당이 속출하며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는 등 고객환급금이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제한적으로 발매를 실시하였으나, 고객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확대시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단, 전자카드(아이터치, 아이터치모바일)로만 구매가능하다.

※ 기타소득세 과세기준

1. 환급금액이 10만원 초과이고, 100배 초과일 때
2. 환급금액이 200만원 초과일 때

# 숫자로 보는 경륜

**333.33**

**창원경륜장 경주로의 길이 333.33m.** 창원을 비롯한 광명, 부산경륜장 등 국내 대부분의 경주로가 같은 규격이다. 국내에선 음성벨로드롬이 500m로 가장 길다. 일본은 333.33m부터 400m 트랙까지 다양하고, 국제대회에서는 250m, 333.33m 트랙을 선호한다.

**54**

**국내 최고령 선수의 나이.** 경륜 1기 허은희 선수는 1965년생으로 만54세이다. 현재 국내 경륜선수 중 최고령의 선수이다. 경마의 경우 만56세의 기수가 있지만 신체적 능력으로만 성적을 내는 경륜의 특성과 비교하면 허은희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50**

**경륜 최다연승의 수.** 21기 정종진 선수가 2018년 종전 레전드 조호성 선수의 47연승을 경신하며 그 수를 50으로 올려놓았다. 또 정종진 선수는 그랑프리 3연패도 이뤄내며 조호성 선수의 기록과 타이틀을 이뤄냈고 이제는 4연패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2019년 그랑프리가 기대되는 이유다.

**34,906.5**

**역대 경륜 최고 배당.** 2012년 10월 12일 39회 1일차 선발급 경주에서 나온 국내 경륜 역대 최고 배당이자 복승 최고 배당이다. 이 날 기량 상위 선수가 젓히기 승부를 시도했으나 모두 착외하게 되면서 고배당 경주가 만들어졌다. 이 날 단승 91.2배, 쌍승은 3,979.8배, 삼복승 508.3배가 나왔다.

**29,394.1**

**역대 경륜 삼쌍승식 최고배당.** 2017년 12월 2일 고객들에게 다양한 베틱의 재미를 선사하게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삼쌍승식에서 나온 국내 경륜 삼쌍승식 역대 최고배당이다. 이 날도 기량 상위 선수가 모두 착외하게 되면서 고배당 경주가 생성되었다. 삼쌍승식 배당이 표출될 때 고객들의 탄식이 엄청났었다고...

**14,000,000**

**창원경륜 대상경륜 우승자 상금 금액.** 1년에 한번 있는 창원경륜의 왕좌를 차지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금이다. 이외 부가적으로 각종 수당을 수령해간다.

**1/2000**

**착순판정 카메라의 셔터스피드 속도.** 1/100초도 1/1000초도 아니다. 무려 1/2000초다. 기록경기가 아닌 순위경기이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게 측정이 되어야한다. 착순판정 카메라는 결승선 부근 전체를 찍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 라인만 연속 촬영하여 촬영된 상을 이어붙여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다보니 결승선을 빠르게 지나간 선수가 느리게 지나간 선수보다 짧게 표현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이는 영상 조작이 아니라 착순카메라의 특성상 발생하는 현상이니 오해하지말자





# 2019 공단 사이클팀 비상하다!!!

2019년 공단사이클팀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4월 나주에서 펼쳐진 제36회 대통령기를 시작으로 10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까지 4개 대회에 참가해 종목별 금메달을 무려 5개를 획득했고 전체 메달은 9개에 달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종목별 금메달이 2개에 불과할 정도로 쇠락하여 사이클계의 우려를 받고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괄목할만한 성적이다.

공단 사이클팀은 감독과 선수를 합쳐 4명에 불과해 초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규모가 작다. 전국규모의 대회 출전을 하면 관중석에서 저 구성으로 돌아가는게 신기하다고 안타까운 탄식이 나올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올 4월 김도훈 이사장 취임과 함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고 성적은 급상승세에 들어섰다.

특히 단체스프린트에서는 이미 국내에 적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3명의 주자가 동시에 출발하여 순서대로 각각 한바퀴를 책임지고 퇴피하게 되는 단체스프린트 종목의 특성상 개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호흡과 적절한 주자 배치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1번 주자이자 팀의 주장인 김우겸 선수의 경우 스타트 후 한바퀴 기록이 국내에서 최상위권이며, 2번 주자 정재희 선수 또한 단체스프린트 종목 2번 주자중 국내에서 기록이 가장 좋다. 3번 주자 원준오 선수는 국가대표 사이클출신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아 귀추가 주목되는 루키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사이클팀을 이끄는 중심에는 2003년 코치로 입사하여 2007년부터 감독으로 공단 사이클팀을 이끌고 있는 박상원 감독이 있다.

2000년대 중후반 공단사이클팀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박 감독은 학교 지도자를 거쳐 대표팀 지도자까지 지낸 바있는 사이클계에선



명망 높은 지도자다.

현재 경륜 특선급에서 활동 중인 이현구, 박용범, 최래선 같은 선수들도 그의 제자이다.

2020년엔 주니어국가대표로 활약중인 한동현 선수를 영입해 2000년대 초중반의 명성을 다시 되찾기위해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국체육대회까지 4개 대회에 참가해 종목별  
금메달 5개를 획득했고, 전체 메달은 9개!**



# 그랜드홀(지정좌석실) 오픈!!

공단은 고객들에게 차별화 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랜드홀을 오픈한다. 그 동안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을 하던 5층 동편 경륜홀을 활용하게 될 그랜드홀은 일반석 94석, VIP석(3개실-유쾌,상쾌,통쾌) 36석, 총 130석 규모로 운영되며 전 좌석 지정좌석제이다. 입장 고객에게는 커피, 음료, 사인펜, 간식 등을 제공하며, VIP석은 추가로 예상지 1권을 제공한다. 입장료와 별도로 이용요금 일반석 5,000원, VIP석은 10,000원을 받는다. 경륜경주일(금,토,일)만 운영하며 당일 선착순 접수 및 사전 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은 12월 22일부터 나흘간 시범운영을 실시 후 1월초부터 정식운영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시범운영기간에 맞춰 휴대폰 무선충전기와 간식 등을 나누주는 고객시은행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구분	그랜드 홀(Grand Hall)	
	일반석	VIP석(3실-유쾌,상쾌,통쾌)
위 치	동편 5층	동편 5층
입장료	5,000원	10,000원
제공 서비스	커피, 음료(커피), 싸인펜, 등	예상지, 커피, 음료(커피), 싸인펜 등
좌 석	94석	36석

• VIP석

• 일반석

# 사명변경 & 사업다각화

공단은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매출 하락에 직면해 경륜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명변경을 통한 사업다각화를 추진중에 있다. 이미 10년간의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을 통해 경륜 외의 사업능력은 인정받은 바 있지만 창원경륜공단이라는 사명에서 오는 경륜사업에만 국한되는 한계와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부딪혀 막혀왔다. 이에 공단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사명변경을 결정, 8월부터 사명, CBI 개발용역 예산을 확정,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과 개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10월 업체와 계약하였다. 현재 여러 안을 가지고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새로운 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단은 경륜 외에도 설립취지에 맞추어 시민들과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신규고객의 유입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경영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신규고객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규고객들이 공단을 방문하면 공단의 각종 사업과 공익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시청을 하고, 객장 내 각종 시설 관람과 함께 베틱 체험도 하게 된다. 5월부터 11월 현재까지 700명 가량의 신규고객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중에 있다.



창원경륜공단  
HANGWON CYCLE RACING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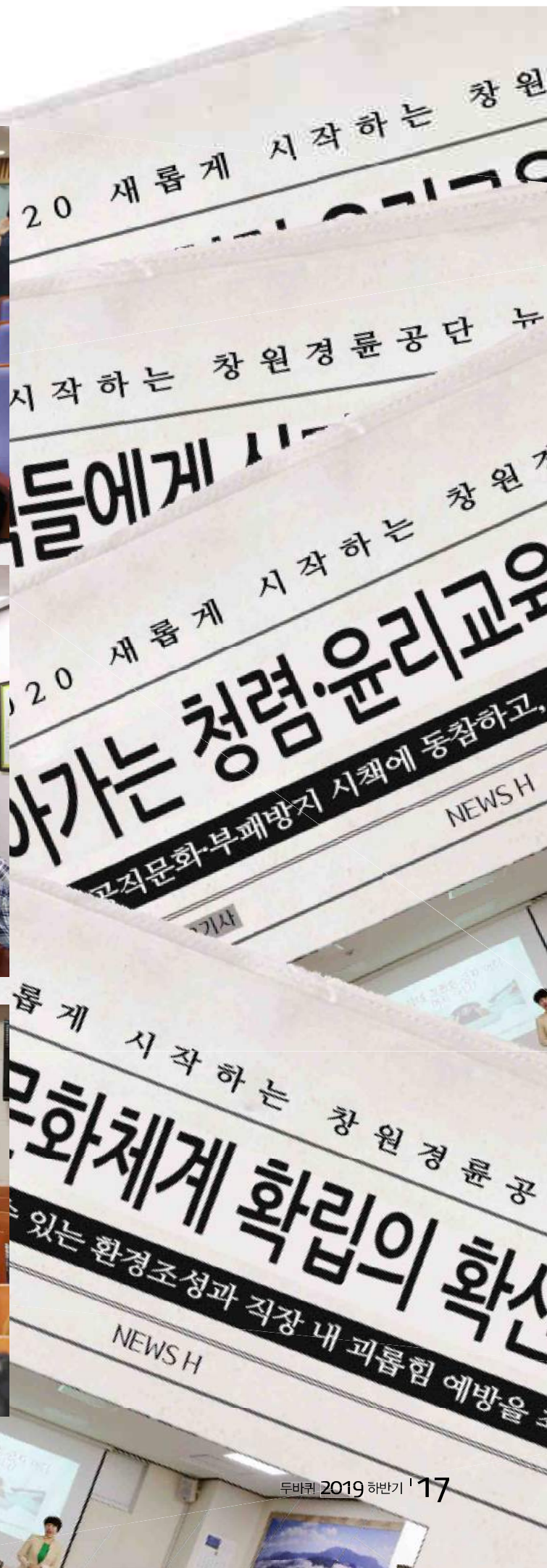


공단은 최근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청렴한 공직문화·부패방지 시책에 동참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윤리경영과 인권보호 의무 이행과 인권존중 문화체계 확립의 확산에 앞장서기 위한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청렴, 공정, 성실, 품위, 존중, 신속, 신뢰의 가치 아래 윤리경영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였고, 전 직원들이 참여한 청렴표어 공모와 부서별로 '찾아가는 청렴·윤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청렴의식 고취 도모와 함께 직원들의 적극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경영전문가, 협력업체,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가 발족하여 회의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또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반(反) 괴롭힘 정책 선언문 선포식을 통해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이런 노력과 성과들을 인정받아 창원시에서 실시한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을 최우선적 가치로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경남사랑 자전거대행진

공단은 지방체육진흥에 기여하고 도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16회 경남사랑 자전거대행진'을 10월 20일 경남 진주시 칠암동 남강야외무대에서 경남일보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자전거 동호인과 진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도훈 공단 이사장과 공동 대회장인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조규일 진주시장, 김재경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

올 해 자전거대행진은 칠암동 남강야외무대를 출발해 남부산림자연연구소, 혁신도시, 김시민대교, 상평 제방, 진양교를 거쳐 다시 남강야외무대를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되었으며, 진주시가 야심차게 진행중에 있는 자전거길 코스를 활용해 도민과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도훈 이사장은 "도심 교통체증 완화, 환경오염 방지, 개인 건강 관리에 자전거만큼 좋은 수단이 없다"며 "어느 도시보다 자전거 타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예향의 도시 진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전거 길이 있으니 자전거 타기를 즐겨달라"고 했다. 또 "경남일보와 지속적인 공동주최를 할 것이며, 경남도민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자전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대회를 밝혔다.





# 가을속으로... 달리Go! 즐기Go!

공단은 자전거문화센터에서 운영중인 자전거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낙동강 자전거길을 라이딩하는 환경체험 자전거투어 행사를 개최했다. 수료생 30여명이 참여한 이 날 행사에서는 낙동강 자전거길 중 창원시 본포수변공원을 시작으로 수산다리, 유청마을을 돌아오는 왕복 20km 코스를 달리며 자연을 만끽했다. 공단은 연1회 실시하던 행사를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아 2019년도부터 연2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 교육이나 환경체험 투어에 대해 궁금하다면 공영자전거팀(055-239-1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누비자로 떠나는 창원 관광



# 누비GO!!



글\_이창기(충무회계팀)

가을은 참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물론 식도락을 즐기는데 최고의 계절이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을의 선선한 날씨는 방랑 본능을 자극하고 특유의 정취는 눈을 즐겁게 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적당히 몸도 움직이면서 가을의 여러 가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짧은 여행을 계획하였다.

진해는 대표적인 '벚꽃축제'인 군항제 뿐만 아니라 당일치기로 산과 바다, 하늘까지 한 번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여행지다.

195ha의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진해드림파크, 자전거를 타며 바다를 볼 수 있는 해안도로, 하늘을 느끼기에 최적인 해양공원의 쥘트랙이 자전거 기준으로 모두 한 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누비자를 타고 진해로 떠나보았다.

처음으로 도착한 진해드림파크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코스였다. 걸어서 이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오르막인 만큼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는 힘이 부쳤다. 그래도 가을빛에 물든 노랑과 빨간 나뭇잎과 고즈넉한 산책로를 보는 순간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주말 오후답게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145종의 수목으로 구성된 11개의 생태숲과 목재의 생애·목조주택의 변천사 등을 배울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대로 꾸며진 광석골킥터 등이 있어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과 여유로운 피크닉을 즐기는 데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진해드림파크를 떠나 해양공원으로 향하는 중에 마주친 해안도로는 2006년 완공된 진해루를 중심으로 조성된 곳이다. 환경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창원시답게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한 전용도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스쳐 지나가는 푸른 바다와 비린 바다냄새는 자꾸만 멈추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한지 가만히 멈춰 서서 가을바다를 바라보는 이들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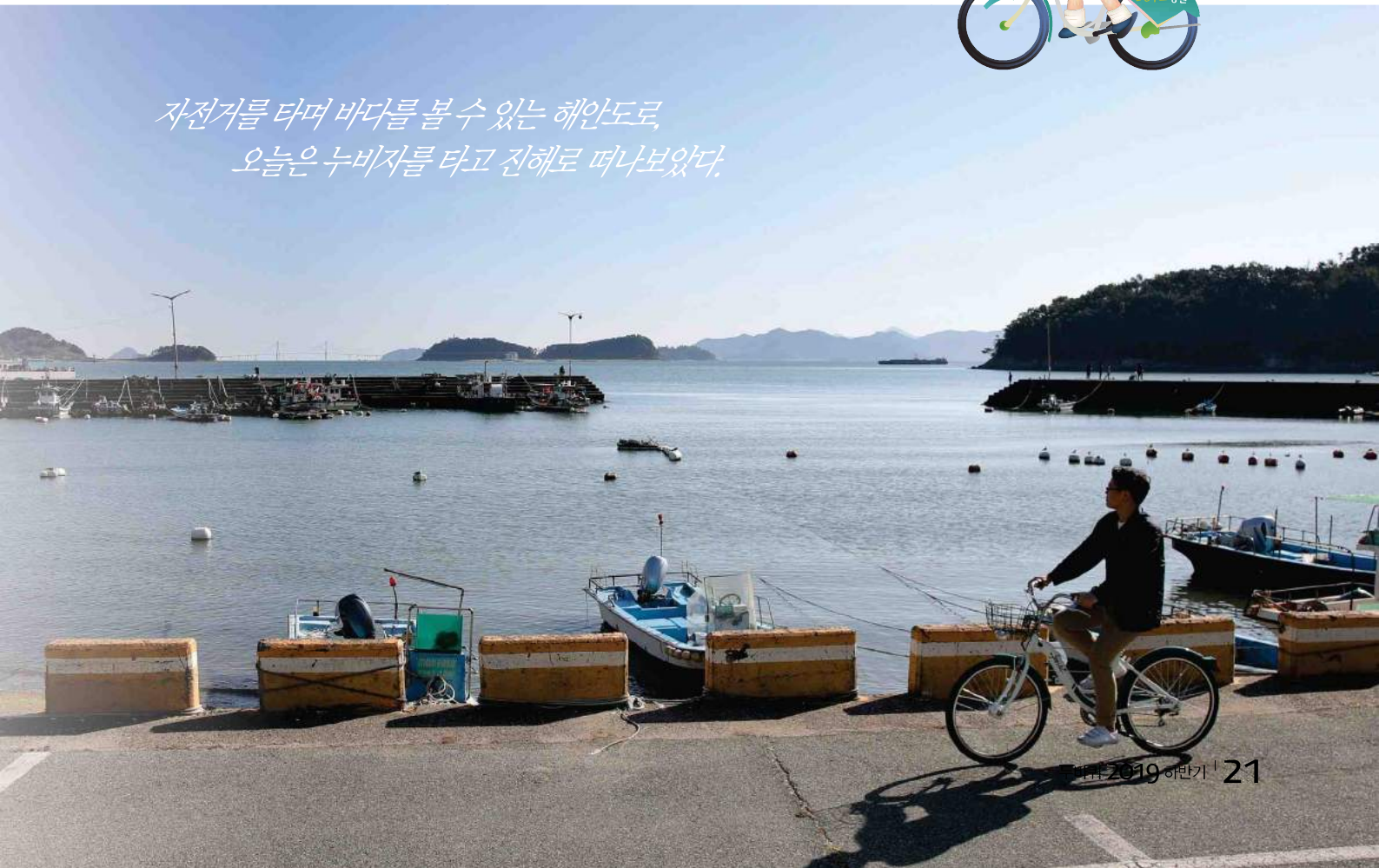
해안도로를 20여분간 열심히 달리다보니 해양공원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해양공원은 KBS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서 소개된 슬라타워로 유명해졌는데 최근 줏트랙이 개장하면서 더욱 주목받는 곳이다. 이곳은 시속8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해양공원-소쿠리섬간 1,339m를 활강하는 줏트랙과 99m 높이의 타워 가장자리에 매달려 걷는 옛지워크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여행에서는 하늘을 느낀다는 취지에 맞춰 옛지워크만 체험해보았다. 아이 셋을 동반한 가족들과 함께 안전장치에 매달려 발밑이 흰히 보이는 바닥을 걸었는데 사실 공포감에 하늘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아이들은 순수하다고 했던가. 체험도우미가 시키는 대로 가을하늘에 자유롭게 몸을 맡기는 아이들을 보니 부럽기만 했다. 스릴을 즐기거나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한번쯤은 체험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오늘은 3시간 남짓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충분히 몸을 움직이겠다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가을의 산, 바다, 하늘을 누리는 데 역시 만족스러웠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누비자와 함께 짧은 가을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누비GO는 누비자+GO의 합성어로 누비자를 타고 창원시 관광코스를 소개하는 연재코너이다.



*자전거를 타며 바다를 볼수 있는 해안도로,  
오늘은 누비자를 타고 진해로 떠나보았다.*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줘 감사해...

17기 우수급

남용찬

▶ 남용찬 선수 안녕하세요? 두바퀴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 네 반갑습니다. 경륜 17기 우수급으로 의정부팀에서 활동중인 남용찬입니다.

▶ 남용찬 선수 요즘 꽤 바빠서 같아요. 본업인 자전거는 당연한거고 사진이란 취미에 툭 빠져있었는데 어떤가요?

▶ 지금 아내와 결혼할 시기가 되어갈 때쯤 신혼여행가면 멋진 사진을 찍어줘야지 하고 처음 DSLR카메라를 구입하게 계기가 됐어요. 물론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언제나 그렇듯 방치가 시작됐죠. 그러다가 한 동안 선수들 사이에서 DSLR 열풍이 불기 시작해 저도 다시금 카메라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동료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들을 찍었는데 하루는 13기 박유찬 선수가 십 수년간 자전거를 타왔는데 자기 사진이 없었는데 이제야 생겼다며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구요. 그 때가 전환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진 관련 서적부터 온라인 강좌 까지 되는대로 다 봤습니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실 본업과 취미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 본업과 취미를 병행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본업인 운동이 우선이다보니 훈련 후에 툭툭 찍는건데 때마침 제 주변에 사이클선수라는 피사체가 있다보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아 적절한 선에서 조화를 잘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 사이클선수를 항상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 남용찬 선수하면 생각나는 것은 역시 몇 년 전 미사리 경정장에서 벌어졌던 경정보트와의 대결인데 승리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의 기억에 대해서 말해달라

▶ 당시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개최할 때었는데 저는 경정보트와의 대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때 제가 몸상태도 좋고 성적도 괜찮은 시기여서 자신감이 붙었을 때라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보트의 속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당황스럽더라구요. 게다가 선발급인 9기 박경덕 선수가 이미 패한 상황이라 더 긴장하고 있었는데 최선을 다했더니 좋은 결과가 생겨서 엄청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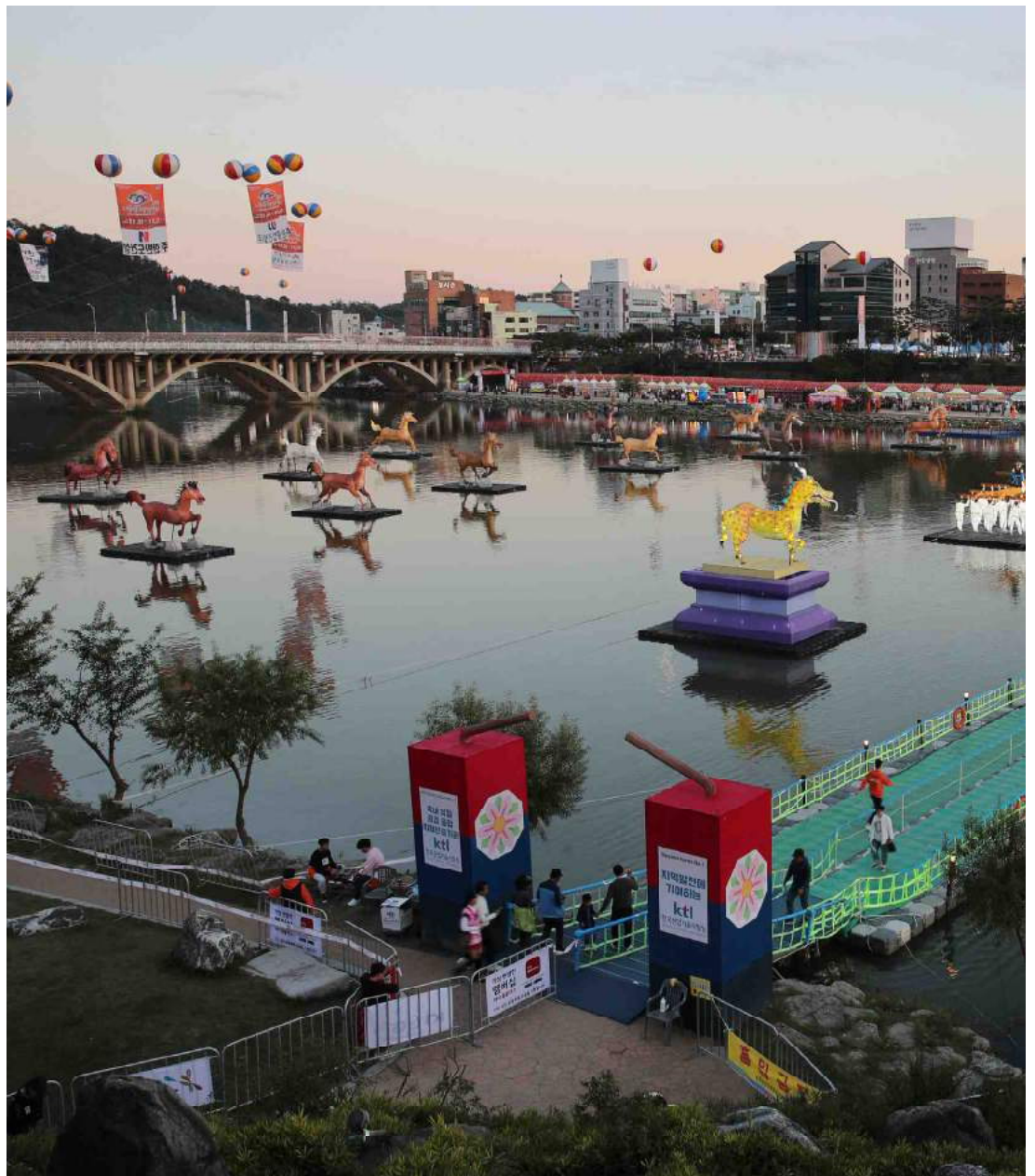
▶ 얼마전 이벤트로 우수급vs특선급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 상황이라던지 소감을 말해달라

▶ 우리 선수들은 매 경주에 전력을 다하지만 특선급과의 경주는 저도 처음인지라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급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만만하거나 우습게 볼 선수가 없었고 긴거리 승부에 능한 선수들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었네요. 특히 그 날은 아내와 친구들이 직관을 와있었는데 남편으로서, 친구로서 더 제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 앞으로 어떤 선수로 남고 싶은지 포부와 결심사

▶ 최근 저를 응원 해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지셨는데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목표이지만 꼴지를 할 지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항상 입상할 수 있도록 하여 저를 성원해주시는 고객분들께 행복함을 선사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창원경륜 팬분들 찾아 뵙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초가 되면** 7만여 개의 유등 불빛이 서부경남의 젓줄 진주 남강 밤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인다. 유등축제는 한산도대첩, 항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성대첩으로 그 유래가 거슬러 올라간다.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의 관군과 백성, 의병들로 구성된 3,800여명의 수성군들이 진주성을 침공한 2만 여명의 왜군과 10일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던 당시 하늘엔 성 외곽의 지원군에게 군사신호를 띄우기 위한 풍등을,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기 위해 유등을 띄우고, 또 성 내에 병사, 백성들이 성 밖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한 통신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던 것이 그 유래가 됐다고 한다.

원래 유등축제는 국내 최초의 지방문화예술행사로 1949년부터 시작된 진주 개천예술제(前영남예술제)에서 특별 행사로 운영되던 것을 2000년 10월 '진주남강국제등축제'로 본격 운영되었다. 그리고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전국 13대 축제에 포함되게 되었고 2014년 대한민국 명예대표축제로 선정까지 되었다.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 LA와 캐나다 등에도 수출되고 해외 각종 여행전문지에서 가보고 싶은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 가보고 싶은 우리 땅 “진주유등축제”를 찾아서



한편 2015년부터 축제를 무려(?) 1만원으로 유료화 하는 바람에 시민들과 언론의 못매를 맞기도 하고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지역 소상공인의 저항에 직면하기도 하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금 무료로 전환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유등축제는 초혼점등식, 거리퍼레이드,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소망등 달기, 유등 띄우기, 창작등 전시, 100년의 추억등 전시, 남녀가 함께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랑다리 건너기 체험 등 각종 체험마당 및 부대행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충절의 고장 진주를 방문하여 가족, 연인과 함께 진주성을 붉게 물들인 단풍과 함께 남강을 밝히는 유등을 보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 『2019 노사한마음 다짐대회』



글\_이창기(총무회계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지난 10월 28일, 노사 및 임·직원 간의 열린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2019년 노사한마음 다짐대회」가 열렸다.

길었던 하절기 경주를 마무리해서인지 피스타에 모인 200여명 임직원들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고 이사장님의 개회선언으로 행복, 동행, 창원, 경륜 4팀으로 나누어 노사한마음 다짐대회를 시작했다.

오전 몸풀기 체조와 팀별 응원전을 통해 장내의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간단한 게임과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팀원 간의 서먹한 분위기는 점점 해소되었고 팀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점심식사 후 시작된 본격적인 운동회에서 피구, 낙하산 메고 달리기, 판 뒤집기 등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띤 응원을 펼쳤고 함께 구슬땀을 흘리다보니 서로가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노래자랑의 막이 올랐다.

이렇게 재능 많은 분들이 공단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할 때마다 웃음과 환호가 터져 나왔고, 특히 신입사원 박건영 대리는 젊은이다운 패기로 장내에 큰 웃음을 주었다.

노동조합에서 준비한 행운권 추첨 행사는 번호가 호명될 때마다 긴장감을 주었지만 공단 가족 모두가 양손 가득 즐거움을 안고 귀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번 「노사한마음 다짐대회」는 본래의 취지대로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사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유쾌하고 매력 넘치는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단을 지탱하고 있음을 알게되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였다.

이번 체육대회를 발판삼아 2020년에도 우리 공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고 달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여가활동, 스포츠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자전거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늘날 자전거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교통법규 위반이나 안전장구 미착용 등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의식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자전거 관리 소홀이나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운전자 부상 및 자전거 파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고지점의 기물 파손 등 사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전거 사고의 유형과 예방법을 자세히 알아두자.



### ◀ 큰 길로 나갈 때

좁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큰 길로 나갈 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을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고 큰 길로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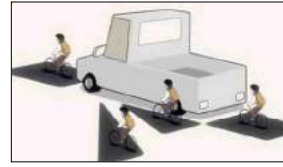
### ◀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날 때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거나 출발할 경우 부딪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주차된 차량과 거리를 두고 천천히 통과합니다.



### ◀ 자동차의 사각지대 통행

자동차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이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학원버스나 대형트럭 등 앞과 뒤, 양 옆의 사각지대에서 자전거를 타면 위험합니다. 차량의 뒤에 바짝 붙어 있다가 차량이 후진할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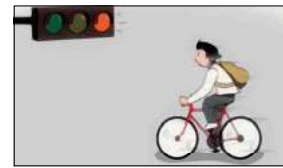
### ◀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 할 때

자전거 운전자는 모든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자동차들은 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있으나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신호무시 주행

빨간불로 바뀌려고 할 때 속도를 내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지나가야 하며 교차로 횡단 신호에서는 신호가 충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타고 지나갑니다. 자동차의 접근속도, 방향 등을 예측하고 무리하게 횡단하지 않습니다.



### ◀ 제멋대로 타는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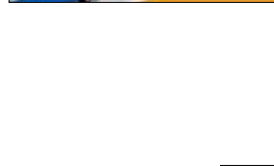
친구와 스피드 경쟁을 하며 자전거 타지 않기



### ◀ 손 놓고 자전거 타지 않기



### ◀ 주차된 차 사이를 지그재그 타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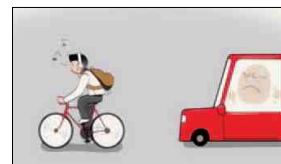


### ◀ 친구와 이야기하며 나란히 자전거를

타며 어린이 및 보행자를 인식 못하는 경우

### ◀ 자전거를 타면서 전화를 받거나 이어폰을 끼고 타며

주변의 상황을 인식 못하는 경우



### ◀ 16시 ~ 20시 사이 자전거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기에

자전거 주행 시에는 전조등, 미등, 반사체, 안전조끼 등 야간운전 시 안전장비 및 복장을 설치, 착용하여야 한다.



### ◀ 자전거 교통사고 중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80%로

가장 높아 안전모 착용을 습관화 함으로써 치명적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 창원 돔 소식

## 공단·창원지역 경륜선수 봉사활동

공단과 창원지역 경륜선수는 6월 27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의 노인요양시설 성심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 날 봉사 활동에서는 공단 직원 10명과 경륜선수 22명이 참여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요양원, 양로원의 실내·외 환경정비와 함께 공단에서 지원한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함께 지원했다.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이행 최상위

공단은 7월 31일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실적 31%를 달성하며 경남·부산 권역내 지방공사·공단 중 최상위권에 자리했다. 이는 당치 목표치보다 5%이상 초과 달성 한 것으로 2020년에도 현재 수준의 초과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권경영위원회 발족

공단은 8월 18일 인권존중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권경영전문가, 협력업체, 공단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사결정·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의 실행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김해지역 김상근 선수에 모범선수 표창

공단은 8월 28일 이사장실에서 성추행범 검거의 공로로 경륜 13기 김상근 선수에게 모범선수 표창을 수여했다. 김상근 선수는 7월 28일 김해시 모 아파트 단지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던 20대 남성을 추격 끝에 제압하여 검거한 바 있다.



### 반(反) 괴롭힘 정책 선언문 선포식

공단은 8월 28일 공단 대강당에서 반(反) 괴롭힘 정책 선언문 선포식을 열었다. 이 날 선포식에는 전직원이 참석해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경영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실현을 다짐했다.

### 김해지점 자전거 무상수리 봉사

공단 김해지점과 대한적십자사 김해 재난대응봉사회와 합동으로 김해지역 전역에서 자전거 무상수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휴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한 기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김해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 아세안판타지아 행사개최

11월 24일 공단 피스트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전야행사인 아세안판타지아 콘서트가 개최됐다. 경상남도과 창원시가 주최한 이 날 행사에는 싸이, 보아, NCT127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을 비롯해 아세안국가의 대표가수들이 총 출동했으며, 각국 정상 의 영부인과 시민, 아세안국가 이주민들이 찾아 축제를 즐겼다.

### 노사 행복한 동행 김장나누기 행사

공단과 노동조합은 11월 13일 공단 내 자전거문화센터 일원에서 '행복한 동행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창원시 공무원노동조합과 민간봉사단체도 참여해 김장 1000포기를 담겼으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관내 5개 구청에 배부했다. 공단과 노동조합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건실한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 무차입경영으로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경고 :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다